

## 한국어와 불어에서의 의문형 문장의 실현과 대응구조

박영옥\* · 한영목\*\*

### Abstract

**Park Youngok, Han Youngmok.** 2013. 10. 31. **The realization of the interrogative sentence in Korean and French and its corresponding structure.** *Bilingual Research* 53, 81-114. The interrogative sentence in French occurs by the inversion of subject and verb, while that of Korean expresses the interrogative by agglutination in the terminative of discourse verb.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the interrogative sentence in French expressed syntactically, while the Korean interrogative sentence is manifested in a morphological way. So the French native speakers should know how to choose the correct termination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sense of purpose. Hence this paper is intended to help them understand the morphological structure, function and meaning of sentence ending through a comparative and contrastive explanation with the French. Also, the sentence ending has two forms namely; the simple form and the complex form. When terminative *-eo*, *-ji* is used in the interrogative sentence, *-eo* is used in the simple interrogative indicatively, *-ji* in the affirmative interrogative. This results from the combination of grammatical meaning of the given morpheme and the modality of enunciation. We analyzed *-neun ga* and *-eul gga* that each particle contains *-neun-* and *-eul-*. And we have identified the particle *-neun-* corresponds to the indicative mood, while the particle *-eul-* conditional mood in French. *-Neun-* has a value present, then the particle expresses its proposal as real in terms of the attitude of the speaker. This particle is used to operate querying the meaning of judgment. If the sentence ending contains the particle *-eul*, the speaker expresses his proposal so

---

\* 제1저자

\*\* 교신저자

it's uncertain since it assumes and queries in an uncertain attitude. From there it expresses the hypothetical result. This is why *-eul-* expresses the value of the conditional mode. The complex sentence ending block is used, it reveal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s the proposal. The identification of each morpheme component complex sentence ending is to understand its overall meaning. This will help to choose the appropriate sentence ending in the situational context. Now if we would propose the complex sentence ending depending on the structure and meaning, it would be useful in the field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learners of Frenc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sentence type(문장유형), interrogative sentence in Korean and French(한국어와 불어의문문), position of grammatical word in the phrase and sentence(구나 문장에서 형식 단어의 위치), manner of operation of the interrogative sentence ending(의문 종결부의 작용방식), grammaticalization of interrogative sentence ending(의문 종결부의 문법화)

## 1. 머리말

불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어 종결부의 구조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던 박영옥·한영목(2013)에서는 한국어의 종결어미를 그 기능적, 구조적 특성에 주목하여 ‘종결부’라는 명칭으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종결어미는 용언 어간에 교착되어 있지만 그 작용 범위는 문장 전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즉 종결부의 기능은 용언 어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언 어간부가 주어에 작용하여 서술 작용이 이루어지면 선어말 어미를 통하여 문장의 주체 높임, 시제의 표시, 회상 및 추측 등의 양태표현 기능을 덧붙이고 어말 어미로 불리는 종결부를 통하여 간접적인 주어 인칭 정보의 표시, 청자 높임의 고려, 양태의 표현, 문장유형의 결정 등의 역할을 추가한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 종결부의 여러 기능 중 하나인 문장유형의 결정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형태, 구조적으로 차이가 큰 불어권 학습자에게 한국어 의문문의 형성과 이해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한국어

의 언어 유형론적 특징 중 하나는 문장유형이 종결소에 의해 결정되는 점이다. 불어는 단문이자, 평서문이며, 타동사문을 기준으로 볼 때, 문장의 성분 배열이 SVO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는 SOV가 기본 어순인 언어 유형이다. 그런데 한국어 문장유형은 불어와는 달리 성분 배열을 변화시키지 않고 종결부만을 달리 취하여 문장유형을 결정한다. 특히 의문문의 경우 구조적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불어와 비교하여 보면 한국어는 평서문 어순에 의문형 종결부를 취하여 의문문임을 표시하고, 불어의 의문문은 평서문에서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꾸어서 실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불어의 의문문과 한국어 의문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종합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어의 의문형 종결부의 기능과 의미 그리고 작용범위를 살펴보고 불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비교 언어학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어 종결부의 문장 중에서 그리고 동사구 내에서의 위치와 작용 범위를 살펴본다. 둘째, 단순형 의문종결부이며 ‘범용어미’인 ‘-어’와 ‘-지’를 통하여 같은 기호로 복수의 발화행위 양태(modalité d'énonciation)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밝힌다. 셋째로, ‘-는’과 ‘-을’이 포함된 복합형 의문종결부의 형태·의미 분석을 통하여 복합 종결부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고, 종결부를 구성하는 형태소들의 역할을 규명하며, 불어의 대응 범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한·불 의문문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와 불어에서 화계(speech level)와 양태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조사하고 비교 언어학적 해석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한·불 의문문의 실현 구조

### 2.1. 한국어 종결부의 위치와 작용 범위

한국어 문장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문장의 종결부이다. 즉 담화 동사

(박영옥·한영목, 2013)의 내부구조에서 마지막 구성부분이자 문장의 가장 끝에 오는 부분인 종결부이다. 한국어 담화동사는 [어간+선어말 어미+어말어미(종결부)]의 삼분 서열 구조로 이해될 수 있으며, 종결부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는 단수인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복수 형태소가 융합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한국어 의문문은 주로 문장 성분의 위치 변화 없이 의문형 종결부의 출현으로 이루어지며, 범용 종결부의 경우엔 종결부의 선택만으로 문형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어적으로 오름 억양의 사용으로 실현되고 문어적으로는 마침표로 식별이 가능하다.

한국어의 기본어순은 SOV 인데, 명사구의 구조가 [명사+조사]라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라면 한국어 담화 동사는 [어간+선어말 어미+어말어미(종결부)]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종결부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익힐 때, 가장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선어말 어미의 구성 형태소로는 존칭소, 시제소, 추측소, 회상소 등이 있고, 종결부를 이루고 있는 형태소로는 서법소, 청자 높임소, 문장 종결소가 있다. 이들의 내부 구성요소는 엄격한 서열 관계에 따라 배열되며, 종결부를 통하여 문구성을 종료하게 된다. 선어말 어미 구성 형태소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출현되므로 한국어 담화 동사의 최소 구조는 [어간+종결부]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용언어간의 뒤에 서열적으로 출현하는 형태소들은 개별적 요소 자리 하나하나가 문법 범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한국어의 이해에 핵심적이며 난해한 부분이다. 그러면 예문을 통하여 동사의 내부 형태소들의 기능을 살펴보자.

#### (1) 할머니가 수현이에게 과자를 주시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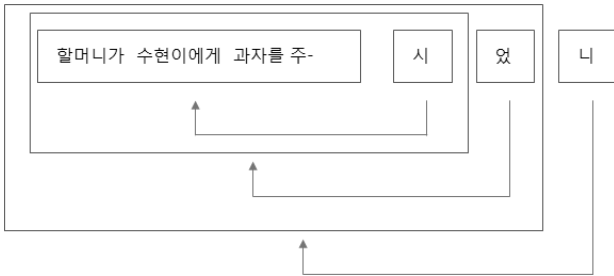
위의 문장은 담화 동사 ‘주시었니’를 하나의 성분으로 다루어 {주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문장은 본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동사 어간 ‘주-’가 문장의 논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머니-수현-과자}의 관계를 조사가 조정하고, 논항의 상호 관계를 결정한다. 그 다음 ‘-시-’의 경우는 이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에 호응하는 높임을 나타내는 존칭소이고, {-았-}은 문장의 어느 한 성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언의 어간에 의해 형성된 문장 전체에 작용하는 시제소인 것이다. 마지막에 오는 종결부의 형태소인 {-니}가 {할머니가 수현이에게 과자를 주시었-} 전체에 작용하면서 문장을 종료하게 한다는 것이다. 담화 동사 구성 요소의 작용 층위는 다음의 도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

[[[[할머니가 수현이에게 과자를 주-]<sub>1</sub>-시]<sub>2</sub>-았<sub>3</sub>]-니<sub>4</sub>]

<그림 1>

혹은



<그림 2 > 한국어 동사 어미의 작용범위

두 종류의 도식을 통하여 나타낸 것처럼 용언 어간의 뒷부분에 오는 문법소들의 작용 층위가 해당 어간이 아니라 문장 전체이며, 서열에 따라 작용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용언의 문법소의 작용 층위의 선조적 성격은 용언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법

범주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본 기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선어말 어미 중에서 존칭소인 {-시-}는 문장 전체라기보다는 주체 혹은 객체와 호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법소와 그 작용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용언 어간 뒤에 오는 접사적 성격을 띤 피동사 동소와는 달리 작용시점이 서술이 이루어지는 후라는 점에서 문장 전체에 투사(incidence)하여 의미의 조절 기능을 가지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시제소 역시 문장 전체에 투사하게 되는 데 작용 시점이 화자가 구성한 명제의 사건 시간의 발화 시점보다 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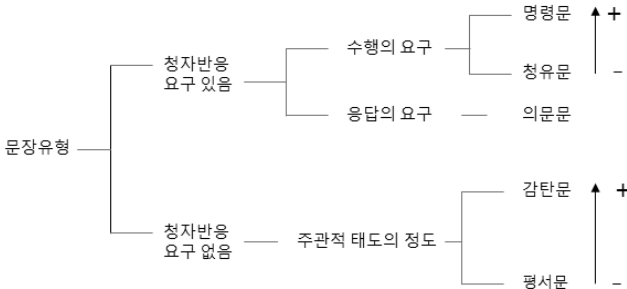
종결부는 문장을 종결하는데 필수적이며, 문장유형 결정, 그리고 청자 높임의 기능과 간접적으로 인칭정보, 그리고 양태의 표현을 담당한다(박영옥·한영목, 2013). 종결부 형태소들의 작용 시점은 선어말 어미의 작용이 완료된 이후로 작용 시점의 선조적 성격은 종결부에서도 여전히 유지된다. 여기에서 종결부 ‘-니’는 청자 높임의 형태소나 양태의 형태소 등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지만 상대에 대한 하대, 의문문의 종결부 형태, 조건법이나 회상법의 양태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부재 등으로 직설법임을 나타내어 준다. 다음은 한국어의 교착적 성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담화 동사의 종결부에 의해 실현되는 한국어의 문장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2.2. 한국어 문장유형의 분류

한국어의 문장유형은 표준문법에서는 5가지(평서, 의문, 감탄, 명령, 청유)로 대별하고 있으며(고영근·남기심, 1989:341), 학문문법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10가지로 세분화하여 문장유형을 제시하기도 한다. 문장유형 중에서는 평서문이 주관성이 낮은 유형이며, 감탄문은 화자 자신의 주관적 감정을 강조하는데 사용하고, 평서문보다 주관적 감정이 더 강화된다. 불어에서 명령문, 의문문은 그 형식과 수행역양에서 평서문과 구

조도 다르고 억양도 다르다(M. Riegel et als 2001:385-409). 불어에서도 기본 문장 유형은 평서문, 감탄문 그리고 의문문, 명령문, 이 네 가지를 제시한다. 불어의 네 가지 문장유형에 한국어는 청유문을 또 하나의 문장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장유형의 구분으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구성한 후에 선택하는 문장 종결부이다. 격식체에서는 비교적 문장유형과 문장 종결부간의 그 대응성이 높지만 비격식체에서는 하나의 문장 종결부는 수행 억양에 따라서 문장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임동훈 2011:330-332). 언어 행위적 관점에서 먼저 한국어의 문장유형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자에 대한 요구성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무리<sup>1)</sup>로 나눌 수 있고 자신의 명제에 대한 주관적 태도의 정도에 따라 2차 분류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자에 대한 요구가 있는 문형일 경우 그 요구의 정도에 따라 2차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 한국어 문장 유형<sup>2)</sup>

1) 권재일(1992:89)에서 요구함 없음(서술법), 요구함 있음은 행동수행성 없음(의문법)과 있음(명령법, 청유법)으로 하위범주로 나누었다.  
 2) 종결부의 상대 높임을 기준으로 감탄문은 ‘-구나’, 평서문은 ‘-다’, 청유문은 ‘-자’, 의문문의 ‘-냐’ 그리고 명령문의 ‘-라’가 각 문장의 해라체 형의 종결부이다.

붙어 역시 문장의 양태는 주로 동사 부분에서 표현되는데, 어순에서도 나타나듯이 동사가 주어와 목적어 사이 위치하여 비교적 문장의 앞부분에서 양태가 표현된다. 따라서 문장이 [양상modus-명제dictum]<sup>3)</sup>구조라고 볼 수 있다(A. Joly et D. O’Kelly, 1990:33).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는 주어와 동사가 서술 작용이 이루어지고 종결부가 문미에 위치한다는 것은 한국어 문장이 크게 [명제dictum-양상modus]이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현이가 학교에 가-]라는 명제(dictum)에 대해 선어말 어미는 화자의 명제 구성 이후에 교착할 수 있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양태서법)를 주로 나타낸다면 종결부는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듣게 되는 청자를 고려한다는 점(의향서법)에서 동사구의 [선어말 어미-종결부] 구조를 발화적 관점(enunciative approach)으로 보면 모두 양태(modus, modality)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문장 종결부는 그 숫자가 많다. 그렇다고 각각의 문장 종결부가 대응하는 문장유형에 일대일 대응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학습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 격식체가 아닌 반말체의 경우 하나의 문장 종결부가 수행 억양을 변화시켜 다른 문장유형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 의문문의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자.

### 2.3. 한국어 의문문의 구조적 특징

의문문은 화자가 대화 상대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상대자의 반응을 기다리게 된다. 한국어의 경우 의문문의 형식은 의문사, 의문문어미, 문말의 오름 억양이 의문문의 특징이다.

3) ‘dictum’은 Ch. Bally의 용어로 화자가 발화한 내용으로 대부분 서술 작용의 결과가 되며, ‘modus’는 발화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의미한다.(A. Joly, D. O’Kelly, 1990:306-307)



- (2) 수현이가 유치원에서 무얼 타고 돌아오니?
- (3) 자네, 밥은 먹었는가?
- (4) 수업은 끝났는지?

예문(2)는 의문사 ‘무엇’, 그리고 종결부의 ‘-니’의 표지로 의문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문(3)는 종결부의 ‘-는가’와 예문(4)는 구어체에서는 오름 억양으로 그리고 문어체에서는 물음표가 의문문의 표지가 된다. 그리고 의문문의 내용에 따라 예문(3)의 경우 판정 의문문, 예문(2)의 경우 구체적 정보의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그리고 ‘너한테 과자하나 못 사줄까?’와 같이 ‘-을까’와 같이 의문 종결부의 표지를 하고 있지만 화자가 대화 상대자의 반응을 요구하기보다는 강한 긍정의 진술을 하는, 즉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적으로 의문문이 아닌 수사 의문문이 존재한다.

그런데 종결부는 문장의 유형 표지뿐만 아니라 상대 높임에 따라 체계를 형성한다. 종결부의 의문형, 해라체는 ‘-(느)냐’, 해체의 ‘-어’, 해요체의 ‘-어요’, 하계체의 ‘-(ㄴ)니까’, 하오체의 ‘-오’, 그리고 하십시오체의 ‘-(느니)까’ 등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한국어 의문문은 문장의 기본 유형인 평서문 문장의 성분 배열의 변화 없이 동사구 끝에 의문형 종결부만 교착시키면 된다. 한국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듣게 되는 청자의 사회적 대우를 고려하여 종결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기호적으로 체계화된 언어이다. 같은 내용의 의문문도 아래의 예문처럼 다양한 상대 고려의 정도에 따라서 표현된다.

- (5) 밥은 먹었나?
- (6) 밥은 먹었어?
- (7) 밥은 먹었어요?
- (8) 밥은 먹었는가?

(9) 밥은 먹었오?

(10) 밥은 먹었습니까?

위와 같이 종결부로만 의문문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장에 의문어를 포함하여 의문문을 만들 수도 있다. 의문어에는 무엇, 누구, 얼마, 몇, 언제, 어디 등의 의문 체언과 의문 관형어(무슨, 어떤, 어느, 몇, 웬), 의문 부사어(어떻게, 왜, 어째서, 얼마나, 언제, 어디) 그리고 의문 용언(어찌하-, 어떠하-)이 있다(류현미, 1999:12-13). 따라서 한국어에서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의문 종결부로 표현되지만 의문문에 의문어가 포함될 경우, 종결부와 더불어 의문어의 어휘적 역할로, [-의문어] 의문문일 경우는 종결부의 역할과 오름 억양이라는 운율적 요소가 문장 유형을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권재일, 2002:178-179)<sup>4)</sup>. 의문사는 의문문의 발화에서 화자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실이 어휘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발화 안에 의문사가 나타나면 그것이 해당 발화를 의문문으로 규정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류현미, 1999:12).

#### 2.4. 불어 의문문의 실현 방법

불어에서 전체 의문문<sup>5)</sup> 형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주어와 대명사일 경우 기본 문형인 평서문에서 주어와 동사를 도치하

---

4) 권재일(2002:176-179)에서 한국어 구어 의문문 실현 방법은 1) 의문 어미, 2) 범용 어미, 3) 서술/명령/청유 어미, 4) 접속 어미, 5) 문장 조각으로 분류되었다. 그 빈도 분석에 (2) 범용 어미의 쓰임이 51.8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두 번째는 (5) 문장 조각(20.74%), (1) 의문 어미(20.00%) 그리고 (3) 서술/명령/청유 어미가 2.22%, (4) 접속어미의 빈도가 5.19%였다. 1)~4)는 형태소의 교착으로 실현되고 마지막으로 5)는 성분의 생략으로 상황 의존적이다.

5) 일반적으로 불어의 의문문은 ‘예/아니오’를 요구하는 전체 의문문과 의문사를 포함하여 문장의 한 성분에만 작용하는 부분 의문문, 그리고 선택 의문문으로 구분한다.(M. Riegel et als, 2001:391-399)

는 것(예문 (11), 예문 (12))이고, 둘째는 문두에 의문소 ‘est-ce que’를 부가하는 것(예문 (13)), 그리고 셋째는 평서문의 문말에서 오름 억양이던 의문문(예문 (14))을 표현 할 수 있다(Y. Delatour et als, 1991:189).

(11) Savez-vous conduire? (당신은 운전할 줄 압니까?) (V-S-O)

(12) Caroline est-elle sortie? (까롤린느는 외출했습니까?)

(S(N)V(Aux)-SV)

(13) Est-ce que vous savez conduire? (당신은 운전할 줄知道吗?)

(est-ce que(의문첨사) SV)

(14) Vous savez conduire? (운전할 줄知道吗?) (SVO (↗))

위의 예문 (11)은 주어가 대명사일 때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경우이다. 이때 주어와 동사 사이에 ‘:’를 삽입하여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음을 문어체에서 표기한다. 구어체에서는 동사어미의 소리가 자음으로 끝나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어 대명사와 도치되어 발화할 때 연음되는 소리를 통하여도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문 (12)의 경우 ‘est-elle’에서 ‘est’의 /t/ 소리가 ‘elle’의 첫 소리 /ɛ/가 결합하여 /ɛtɛla/<sup>6)</sup>로 소리를 내게 된다. 두 번째 예문은 주어가 명사일 경우이다. 주어-동사 도치는 대명사일 경우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 ‘Caroline’는 여성 이름으로 3인칭 단수 여성 대명사 ‘elle’로 대신 받아, 주어 명사는 문두의 주어 자리에 그대로 두고 이를 대신 받은 대명사 ‘elle’과 동사 ‘est’가 도치되어 예문 (12)가 되게 된다. 예문 (13)은 의문 표지 ‘est-ce que’의 문두 첨가로 의문문이 실현되고 구어체에서 가장

6) 주어와 동사가 도치될 때 동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주어와 동사 사이에 ‘-t-’를 삽입하여 모음 충돌을 방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Y a-t-il quelqu’un dans la maison?(집에 누구 있습니까?) 혹은 Ce violoniste joue-t-il dans l’orchestre de Radio-France?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라디오 프랑스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합니까?)

빈번하게 쓰이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억양을 통하여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예문 (14))이다. 평서문의 문장 성분을 그대로 배열하되 문미에서 오름 억양을 이용하여 의문문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문어체에서는 물음표가 그 표지가 된다.

이와 같이 붙어의 의문문은 문장 성분의 배열을 평서문과 달리함으로써 의문문 형식을 표현하게 된다. 즉 평서문의 SV어순을 V-S구조로 도치함으로써 서술 작용이 주어←동사(서술어) 방향에서 동사와 주어를 도치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의문에 부치는 행위(mise en discussion)(황경자, 1987:23-39)의 표현이 바로 붙어 의문 형식의 기본 구조이다. 다음은 한국어 의문문에 사용되는 종결부 ‘-어’, ‘-지’, 그리고 ‘-는가’, ‘-을까’의 분석을 통하여 문장 유형 표현 방식이 다른 붙어권 한국어 학습자가 상황에 맞는 종결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이해의 토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3. 한국어 의문형 종결부의 형태

#### 3.1. 단순형 의문 종결부 : ‘-어’, ‘-지’

한국어의 종결소는 언급된 바와 같이 문장을 종결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며 문장의 유형을 결정한다. 그런데 종결소 ‘-어’와 ‘-지’의 경우 평서문(15), 의문문(16), 명령문(17), 청유문(18)에 두루 쓰일 수 있어서 문장의 유형을 나타내는 데 결정적 표지가 될 수 없다.

(15) ㄱ.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어.

‘(Je constate que) Suhyeon s’est occupé de sa valise.’

ㄴ.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지.

‘(Il me semble que) Suhyeon s’est occupé de sa valise.’

(16) ㄱ.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어?

‘(Tu a vu que)Suhyeon s’est occupé de sa valise?’

ㄴ.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지?

‘(Tu a vu que)Suhyeon s’est-elle occupée de sa valise, n’est-ce pas?’

(17) ㄱ.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어!

‘Suhyeon, soit occupé de ta valise!’

ㄴ.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지!

‘Suhyeon, soit occupé de ta valise!’

(18) ㄱ.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어.

‘(Suhyeon) Occupons-nous de la valise.’

ㄴ. \*(수현이는) 가방을 챙겼지.’

(Suhyeon) Occupons-nous de la valise.’

위의 각 예문에서 ‘-어’의 자리에 ‘-지’를 대치하여도 상황은 같다. 다만 명령문과 청유문의 화행 조건이 지금, 여기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 내용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시제 형태소 ‘-았-’의 교착이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제외한다면 각각의 종결부 ‘-어’와 ‘-지’는 문장을 종결할 수 있고 각각의 종결소에 따라 문장의 의미를 조금씩 달리 한다. ‘-어’와 ‘-지’의 차이는 불어 번역에서 문장의 유형별로 다양한 양식으로 실현된다. 문장의 종결부가 동사구의 끝, 그리고 동시에 문장의 끝이기에 문장의 유형별로 주어의 인칭, 용언의 의미 자질,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계약이 존재한다. ‘-어’와 ‘-지’의 경우 의문문에서 주체 높임의 ‘-시-’, 그리고 시상 형태소 ‘-았-’, ‘-겠-’은 통합되지만 ‘-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겠-’이 교착될 경우 ‘-아’ 의문문에서 청자의 ‘의도’의 의미를 드러내지만 ‘-지’의문문일 경우 용언이 동사일지라도 ‘의도’의 의미가 아니라 ‘추정’의 의미를 나타낸다(한길, 1991:53-54). 이와 같이 종결부는 문장 호응)과 그 작용 범위가 문장 전체이기 때문에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구어 의문문의 경우 ‘-어’와 ‘-지’는 현대 국어에서 그 쓰임의 빈도가 압도적이다<sup>8)</sup>. 그렇다면 이와 같이 똑같은 기호로 다양한 문형을 표시한다면, ‘-어’와 ‘-지’를 통한 한국어 의문문을 어떻게 의문문이라고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름 억양이라는 운율의 방법에 의해서이다. 그렇다면 접속 어미에서 전용된 ‘-어’와 ‘-지’의 의미는 종결 의문소 ‘-어’와 ‘-지’와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 한국어의 보조 용언 구조를 보면 [V1(본동사)+접속어미+V2(보조 동사)]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본용언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문법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장 확대 방법이다(김태엽, 2001:102).<sup>9)</sup> 연결어미에서 기능이 전용되어 문장 종결법을 실현하는 종결어미로는 ‘-어’, ‘-지’ 외에 ‘-게’, ‘-고’가 있다.<sup>10)</sup> 이들은 보조 용언 구성에서 보조 용언이 삭제되어 보조 용언에 있

- 
- 7) 예를 들어 목정수(2004)에서는 한국어 종결부의 인칭정보표지 기능과 주어 인칭과의 대응쪽을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Vous=(당신/X님) -시-, -ez=(시)브니까?/어요?’, 즉 붙어에서 주어가 2인칭 복수일 경우 주어 인칭 대명사나, 존칭의 ‘-시-’, 그리고 종결부와 붙어 동사 어미를 그 대응쪽으로 상정한다.
- 8) 권재일(2002:195-196)에서 한국어 의문문의 주된 실현 방법으로 범용어미의 교착을 들고 있다. 분석 대상 자료에서 범용 의향어미로 실현되는 경우가 전체의 51.85%인데, 그 중에서도 ‘-어’가 39.63%로 압도적이다. 이에 비해 고유한 의문 어미의 사용은 20.00%로 범용 어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유한 의문 어미보다 범용어미가 의문문 실현에서 기능 부담량이 높아진 것을 역사적 변화의 결과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의문 어미의 변화 양상은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의문 어미 ‘-습니까’와 범용 어미 ‘-으오’의 쓰임이 축소되고, ‘-어’와 ‘-지’의 쓰임이 확산되었다고 한다. 이 두 종결 어미는 접속어미였던 것이 종결어미로 전용되었고, ‘-어’는 ‘-는가’ 형태와 교체를 가져오면서, ‘-느냐, -니’의 영역으로 넓혀 왔고, ‘-어-요’는 ‘-으오’와 ‘-습니까’ 형태와의 교체를 불러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 9) 보조 용언 구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접속어미가 종결어미로 전용되는 과정은 김태엽(2001:100-108)을 참조할 수 있다.
- 10) 그런데 근대 국어에서 간소화 과정을 거쳐서 정착한 종결어미 ‘-게’는 청자 높임 보조사 ‘-요’의 결합에 제약을 보이지만 연결어미에서 전용된 종결어미 ‘-게’는 제약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위의 ‘-어’, ‘-지’, ‘-게’, ‘-고’의 공통된 특징은 이 ‘-요’의 결합 가능성 외에 모두 둘 이상의 문장 종결법을 실현할 수 있고 동일한 등급의 청자 높임법을 실현하는 것이다(김태엽, 2001:107).

던 문법 형태소가 본 용언으로 자리 이동을 하여 ‘이어짐의 수행 억양’이 ‘끊어짐의 수행 억양’으로 없히는 경우이다.

(19) ㄱ. 너는 그 책을 읽지 않았느냐? → 너는 그 책을 안 읽었지?

‘(Je suis sûr que) tu n’a pas lu ce livre-là, (n’est-ce pas)?’

ㄴ. 내가 그 책을 읽게 했느냐? → 내가 그 책을 읽었게?

‘(Tu suppose que) j’ai lu ce livre-là?’

ㄷ. 너는 어제 그 책을 읽고 있었느냐?

→ 너는 어제 그 책을 읽었고?

‘(Tu es sûr que) tu as lu hier ce livre?, et...’

ㄹ. 너는 그 책을 읽어 보았느냐? → 너는 그 책을 읽었어?

‘(Je te demande que) tu as lu ce livre?’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로의 전용(translation)은 위의 세 과정을 거쳐서 획득(김태엽, 2001:104)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결부의 형태소의 분석이 불가능한 단순형, 반말체 종결소의 의문문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연결어미 ‘-어, -지’가 종결부로 전용된 이후엔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 평서문과 의문문에 통용되는 ‘-어’의 경우 의문문에서 화자는 명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청자의 ‘예’, ‘아니오’의 대답을 기다린다. 반면에 ‘-지’ 의문문의 경우 화자는 자신의 명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확인 질문이 된다. 단순형 종결부의 경우 형태적으로는 더 이상 분석이 가능하지 않지만 각 형태소마다 고유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11)</sup> 문장의 유형, 곧 언어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시 의미 효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형 종결소의 경우 그 기본의미에 문장의 유형, 용언의 의미 자질 그리고 어떤 선어말 어미가 교착되었느냐

11) ‘-어’, ‘-지’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존재한다. 장경희(1998), 박재연(1999), 손현선(1998), 박나리(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에 따라 다양한 의미 효과의 양태적 표현과 대조해 볼 수 있다. 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기로 한다. 위의 예문 (19)ㄱ~(19)ㄴ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단순 형태의 종결부가 붙어에서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복문의 주절로 표현될 수 있다. 각각 확신(être sûr), 추측(supposer) 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대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단순형 종결부 중에서 ‘-어’의 경우는 사실 의 확인(demander)이라는 직설법(mode indicatif)적 의미 가치를 나타낸다. 이는 종결부 ‘-어’, ‘-지’를 붙여권 화자에게 교수할 때 대응될 수 있는 붙어 표현과 함께 제시한다면 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3.2. 복합형 의문 종결부

여기에서는 복합형의 의문 종결부를 붙여권 화자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국어학에서 문장 종결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종결부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하여 청자 높임법의 등급에 따라 형태 목록을 제시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종결부의 형태를 이루는 어미구조체에 관여하는 공통 요소를 찾아 그것을 토대로 하여 종결부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최현배(1971), 한길(1991), 그리고 허웅(1995)등이고, 후자는 고영근(1974), 서태룡(1985), 그리고 김태엽(1997) 등이 그 한 부류이다(김태엽, 2001:144-145). 김태엽(2001)에서는 국어의 종결부 형태 유형을 갖춘 형태, 기능 변동 형태 그리고 기능 전용 형태 3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갖춘 형태의 경우 종결부를 이루는 어미구조체에 형태론적 문장종결소가 관여하는 형태와 그런 형태에 다른 요소가 결합한 형태를 포괄하는 형태이다.

붙여권 화자에게 의문 종결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의문



문의 종결소의 형태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해당 종결부의 의미 정보가 종결부의 구성 형태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태엽, 2001:157).<sup>12)</sup>

한국어 의문문의 형성 전략은 기본적으로 의문 종결부에 의해서 특정화된다. 그런데 복합 종결부 내부적으로 많은 형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어권 화자에게 각각의 통합된 종결부의 통사적 조건과 의미를 제시하기 보다는 의문형 종결부의 공통적 형태소를 불어 활용과의 대응구조로 고은숙(2010)의 규정을 차용하였다. 그래서 먼저 의문 종결소의 형태구조 분석을 통하여 ‘-ㄴ-’계와 ‘-ㄹ-’계를 대표 형태로 잡아 의문 종결소에 ‘-ㄴ-/-ㄹ-’의 내포 여부에 따라 분석해 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는-’계 의문 종결부는 불어의 직설법<sup>13)</sup>에 그리고 ‘-을-’계 의문문은 불어의 조건법<sup>14)</sup>으로 대응됨을 확인하였다. 먼저 ‘-는-’계의 조금 높임<sup>15)</sup> 의문 종결부 ‘-는가’를 살펴보자.

- 
- 12) 형태와 의미의 밀접한 대응관계에 대한 논의는 Bybee(1985:3)와 Bolinger(1977:6)등을 참조할 수 있다.
- 13) 왜냐하면 ‘-을까’ 의문 종결부의 번역이 때로는 직설법의 조동사 *pouvoir*(=영어의 *can*)로 환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 14) 이를 위하여 한길(1991)에 제시된 ‘-는가’, ‘-느냐’ 그리고 ‘-을까’, ‘-을래’의 예문 73개를 대상으로 시도되었다. 앞으로 의문 종결소의 형태구조 분석을 통하여 ‘-ㄴ-’이 포함된 의문 종결소와 ‘-ㄹ-’이 포함된 의문 종결소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ㄴ-’ 그리고 ‘-ㄹ-’을 포함하는 복합종결어미 목록을 허경행(2010:177)에서도 참조할 수 있었는데, 순수 의문문 어말어미 목록으로 [종결어미+종결어미] 구성으로 ‘-는다더냐, -는다던가’가 ‘-는-’을 포함하고 있었고, [종결어미+연결어미] 구성으로 ‘-는다면서, -는다며’가 있었다. 간접의문, 수사의문문 어말어미의 목록으로 확대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을-’이 포함된 복합종결어미는 간접의문, 수사 의문의 ‘-을라고’ 그리고 ‘-는-’을 포함하는 ‘-는다고’가 있다. 이러한 복합종결어미를 불어 번역을 통해서 불어의 어떤 문법 범주와 대응되고 대조 설명이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다.
- 15) 김태엽(2001:145-155)에서는 국어 종결어미의 형태 목록을 제시하면서 청자 높임법의 등급을 안 높임, 조금높임, 조금 더 높임, 아주 높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3.2.1. ‘-ㄴ-’계 의문형 종결부 : ‘-는가’

‘-ㄴ-’계 의문 종결소로 분류될 수 있는 ‘-는가’를 중심으로 그 형태 구조와 의미 그리고 불어의 어떤 문법 범주와 대응되어 비교해 볼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는가’ 유형의 의문문일 경우 사실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이룬다. 이것은 의문문 종결소의 형태론적 구성의 차이에서 기인된다(박종갑, 1986b:407)<sup>16</sup>). 다음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20) ㄱ. 철수는 지금 어디 있는가?

‘Cheolsu, où est-il maintenant?’

ㄴ. 철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Cheolsu, où serait-il maintenant?’

위의 예문에서도 보듯이 ‘-는가’는 불어의 직설법으로 ‘-을까’는 조건법으로 실행됨을 볼 수 있다. 불어에서 그 의미는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서 (‘est-il’) 문장의 유형을 의문문으로 만들어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즉, 여기서 화자의 태도는 자신의 명제에 대해서 사실로써 인지한다는 표시를 ‘être’ 동사의 직설법 현재형 ‘est’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ㄴ은 조건법 현재형 ‘serait’로 실현되었다. ‘-는가’를 좀 더 형태적으로 분석해 보면 ‘-는가’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는-’이 서법을 드러내고, ‘-가’(이유기, 2001:35)<sup>17</sup>가 의문형을 나타내는 문장유형 표지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의문형 종

16) ‘-는가’의 ‘-는/은-’과 ‘-을까’의 ‘-을-’은 허용(1983)에서는 현실법과 미정법, 또는 직설법과 추측법의 관계(고영근, 1974)로 파악된다.

17) 그 이유는 15세기의 ‘-(으)ㄴ가’계 의문문에 1·3인칭 주어만이 쓰이고 2인칭 주어(청자 주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추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으)ㄴ가’계 종결소를 사용한 의문문의 의미를 화자의 내적 사유 행위를 나타내는 순수한 自問文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결소 ‘-는가’는 직설법, 의문의 문장 유형 표지가 결합된 종결부인 것이다. 그리고 ‘-가’를 통해서 문장 유형과 더불어 예사 낮춤이라는 청자에 대한 존대 등급을 표시한다. 의문 종결소 ‘-는가’의 ‘-는-’은 불어와 대조하였을 때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하나의 사실로서 간주하는 태도가 내포된 서법적 의미가 있다.

‘-는-’의 의미는 현실법의 때매김을 표현하고, 현실법은 눈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거나, 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술하는 것인데(허웅, 1983:243), 화자가 자기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게 될 때 그것을 확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박종갑, 1986a:407)<sup>18)</sup>.

(21) ㄱ. 이 꽃이 장미가? / 장미일까?

ㄴ. 이 색깔이 흰가? / 흰까?

ㄷ. 이것이 좋은가 / 좋을까 저것이 좋은가? / 좋을까?

(22) 이번에는 1학년부터 출발하는가? / 출발할까?

예문 (21)ㄱ은 ‘이다’<sup>19)</sup> 동사, 그리고 (21) ㄴ, ㄷ은 형용사이다. 그리고 (22)는 동사이다. ‘-일까’와 대립하면 ‘-는-’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사실적인 정보를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대답은 의문사가 없을 경우 가부관정형의 응답을 기다린다.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일 경우는 설명형의 응답을 요구한다. 그리고 선언형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일 때는 제시되고 있는 이접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기를 요구하게 된다. 바로 ‘-는-’이 의문 종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18) 이승욱(1997:248)에서는 중세국어 종결소 {-다}와 {-라}의 문법적 기본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통합될 수 있는 선행 어미군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19) 한국어 교육에서 ‘이다’를 형용사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학교 문법에 따른다.

요구되는 응답 내용은 사실적 정보(박종갑, 1986b:408)가 된다.

이와 같이 종결부가 복합형일 경우 각각의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를 드러내기에 붙어권 화자에게 한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기본 의미를 제시할 때 종결부에 대한 형태 정보를 통하여 어떻게 서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명제를 어떻게 인지해서 청자에게 통보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와 풍부한 종결소가 있는 한국어의 종결부 기능과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데 종결부의 형태 정보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3.2.2. ‘-르-’계 의문형 종결부 ‘-을까’

동명사형 어미 중 하나인 ‘-르’이 포함된 ‘-을까’ 의문형 종결소의 경우 그 ‘-르-’이 ‘미확인법’<sup>20)</sup>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불확정적인 것으로 인지하여 청자에게 추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을 수행하게 된다(박종갑, 1986b:406). 다음은 ‘-을까’ 의문문(한길, 1991:139)을 붙여로 번역하여 놓은 것이다.

(23) 그이가 정말 살아 있을까?

‘Il serait réellement vivant?’

(24) 오늘은 내가 자네를 좀 가르쳐 줄까?

20) 이승욱(1997:247-249)에서 {-라1}앞에 통합되는 선행 어미군 {오/우·리·니·더/러·과/와·애/에·로}에서 공통된 기본 의미자질(내부에 일관하고 있는 素性値의 同意質)을 ‘가능성[주관성]’의 의미로 보았는데, 종결어미 ‘-을까’의 ‘-을-’은 ‘미정, 미확인, 불확실’등의 서법적 의미와 붙어 조건법의 시제적 의미에서 발생하는 의미 ‘가능성’과 유사한 의미 자질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국어 담화 동사는 용언어간과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어미의 통합에 의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개별 문장마다 그 조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용언,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의 ‘통합적 관계’의 제 조건을 따져보아 형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Aujourd’hui est-ce que je te donnerais un conse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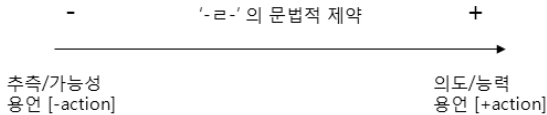
(25)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Je (te) dirais franchement?’

(26) 내가 김선생을 만날까?

‘Je pourrais rencontrer Monsieur Kim?’

위 예문의 불어 번역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을까’ 표현이 모두 불어 조건법(mode conditionnel)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바로 확실하지 않음, 미정 등의 의미를 내포하는 ‘-르-’형태소의 존재가 불어의 조건법에 대응하도록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을까’ 유형의 의문문은 주어의 인칭과 용언의 의미 자질 그리고 시제에 의해서 그 의미 효과가 ‘의도’나 혹은 ‘추정’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주어가 1인칭이고 용언이 [+action]일 경우 ‘의도’의 의미를 드러낸다(김하수, 1989:65). 주어가 1인칭이라도 행동성이 덜하면 ‘의도’와 ‘추정’이 중의적으로, 비행동성 동사일 경우에는 ‘추정’의 의미만 나타낸다. 즉 통사적 제약이 심할수록 ‘의도/능력’을 드러내고 통사적 제약이 약하면 ‘추측/가능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그 구체적인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한길, 1991:142)<sup>21)</sup>

21) 위의 예문 (24)~(26)의 ‘-르-’은 의문문의 주어가 1인칭이다. 따라서 화자 자신에 대한 ‘미정’적 판단이 불어에서 조건법의 ‘직설적 표현의 약화(atténuation)’로 나타난다. 그런 이유로 예문 (24)의 경우는 목적어의 등장으로 제안적 의미가 크고, 예문 (25), (26)의 경우는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27) 내가 정말로 우등생일까?

‘Serais-je vraiment un élève bien classé?’

(28) 내가 조금 후에 한 번 더 말해 볼까?

‘Pourrais-je parler encore une fois tout à l’heure?’

(29) 철수가 내일 이곳에 또 올까?

‘Cheolsu, viendrait-il ici demain encore?’

예문 (27)의 경우 문장의 주어가 1인칭이라도 용언의 의미자질이 [-action]일 경우 의도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나 예문 (28)의 경우 주어가 1인칭, 용언의 의미자질이 [+action]으로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예문 (29)에서, 주어가 3인칭일 경우 용언의 의미 자질의 행동성 여부를 떠나 ‘추측’으로 해석된다.<sup>22)</sup> 그리고 문장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용언이 주관동사(subjective verb)일 경우 ‘-을까’는 화자의 주관적 느낌을 나타낸다. 이 경우 불어에서 조건법 현재로 표현되는 ‘바람’과 일치한다. 실제로 이런 유형은 청자의 반응을 기대하는 의문문이라기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명제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sup>23)</sup>한다는 느낌이 드는

---

미확인오, 명제에 대한 가능성(probable)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의미가 의문문 주어 2인칭일 경우는 ‘상대방의 의향, 의견을 묻거나 제안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서 예의를 갖춘 의문문이 되도록 만든다.

22) 주어가 2인칭일 경우 부정어 ‘못하다’와 통합되는 경우 ‘-을까’는 강한 긍정의 시킴을 나타낸다(한길, 1991:146-147). (1) 어서 냅뭉 쫓아가서 모셔오지 못할까? ‘(Tu le) suit vite, tu dois(devrais) le rammener?’

그러나 부정어 ‘않다’와 통합될 경우 ‘-을까’ 의문문은 ‘추정’의 의미를 나타낸다. (2) 내일은 네가 바쁘지 않을까? ‘Demain, tu serais occupé, n’est-ce pas?’ ‘-을까’ 의문형 종결부와 주어의 인칭(2인칭), 부정어 ‘못, 아니’가 결합되었을 때는 수사 의문문이 되는데 이때 부정어의 기능이 완곡(fléchage)하게 된다. 한국어 문법체계라는 틀에서 ‘-을까’에 대한 범주와 설명 체계는 박동호(2007),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희망 표현의 화용적 시각에 대해서는 이정란(2011) 참조.

23) ‘-(으)는가’계(‘-(으)는가’, ‘-(으)르까’, ‘-(으)르고’, ‘-(으)르꼬’)의문문의 기본

것이다.(한길, 1991:147-8)

(30) ㄱ. 인수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S’il venait (ici), Insu, combien (je) serais si heureux?’

ㄴ. 이런 묘한 생각이 왜 진작 안 났을까?

‘Pourquoi cette idée drôle ne me serait pas venu bien plus tôt?’

그러나 문장의 주어가 1인칭 복수가 되면 ‘제안’으로 이해되는데(한길, 1991:148), 이 경우는 주로 용언의 의미자질이 [+action]일 경우이다.

(31) ㄱ. 우리 둘 던지기 할까?

‘Pourrions-nous jouer le jeu de lancer des cailloux?’

ㄴ. 우리도 저길 가 볼까?

‘Pourrions-nous aller cette rue-là?’

‘-을까’ 의문 종결부는 그 의미가 인칭, 용언의 의미 자질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선어말 어미 ‘-었-’이 배합되면 ‘의도’의 뜻이 소멸된다. 그리고 추정을 나타내는 ‘-겠-’과의 결합은 불가능하다(김하수, 1979:75). 아마도 그 이유는 ‘미정’이라는 의미가 그 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주어, 용언의 의미자질, 선어말 어미가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을까’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많이 달라진다. 의문 종결부 ‘-을까’에 대한 의문문은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는가’ 의문문처럼 확실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미정’으로부터 ‘개연성(probable)’, ‘불확실(uncertain)’한 양태의미를 가지고 전달하는 의문형식인 것이다<sup>24)</sup>. 그리고 이러한 양태적 의미는 불어의 조건법과

의미를 “내적사유표현”이라 하여 自問과 질문에 두루 쓰인다고 보고, 이 “내적사유표현”의 형식은 自問을 나타낸다. (이유기, 2001:31-35)

24) 충남 방언에서도 어말어미 ‘Vst+르까+ㅁ+에/이’의 융합형인 ‘-깨미’는 중앙

일치한다.

그런데 불어의 조건법은 그 동사 형태가 [미래형 어간+반과거어미]로 조합되어 서법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욕망, 기원, 후회, 불확실한 정보, 가상적 사실과 더불어 사실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며, 한국어에서는 종결부의 ‘-을-’이 이러한 의미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까?’<sup>25)</sup>가 통합되어 의문형식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분석을 통하여 ‘-을 까?’의 기본의미를 이해 및 제시할 수 있다. 나아가 주어의 인칭, 용언의 의미 자질, 그리고 선어말 어미와의 제약 등의 언어 맥락을 적용하여 어미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의문 형식에 양태적 의미를 불어의 조건법과 비교하여 제시한다면 불어권 화자가 ‘-을까’ 의문형 종결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 종결부의 형태 구조 분석을 토대로 한국어와 불어를 화계의 구분 방식, 양태 표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어의 ‘-르까봐(보아)’와 유사한 것으로 융합형 연결어미형으로 쓰인다. 여기서도 내포된 ‘-르까’로 이 어미는 추정적인 사건이나 미정의 일을 표현한다. 이와 같이 융합형 어말어미에 ‘-르’이 녹아있을 경우 그 의미는 ‘불확실’이라는 기본 의미가 있어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추정’적 혹은 ‘미정’이라는 심리적 태도를 표지하게 된다. 1인칭에서는 말하는 이의 의지에, 2인칭에서는 행위 주체의 의지에 대한 의문문에 나타난다.(한영목, 2008: 166-167)

- 25) ‘르’다음의 무성 평음이 경음화한 것이다(이유기, 2001:31-32). 관형사형 어미 ‘-(으)르+후속 요소’가 발음상으로는 된소리를 겪은 상태로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것들로, 아예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대로 적는 경우도 많다(이문규, 2012:201-203). 관형사형 ‘-(으)르’ 뒤에 후속 요소와 굳어져 경음화된 상태의 ‘-까’라는 기호(signe)의 변화는 그 사용 영역이 특정한 한 부분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줌과 동시에 그 융합의 정도가 더 강화되었다는 표지로도 이해된다.



## 4. 한불 의문문의 실현 방식의 대조

### 4.1. 화계의 구분 방식

한국어 문장의 동사는 용언의 어간, 선어말 어미 그리고 어말어미인 종결부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종결부는 의사소통의 주체 중에 하나인 청자고려 표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의문 종결소의 단순형의 경우 청자 높임은 반말체가 되어 청자를 높이지 않는다.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음으로써 청자 높임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의문 종결소 ‘-습니까’의 경우 청자 높임이 ‘-습-’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습니까’는 다시 [습+니+까]로 분석될 수 있다. ‘-니’는 직설법 표지로 그리고 ‘-까’는 의문문 표지이다. 그런데 불어의 경우 동사 활용(conjugation)은 시제와 서법만 표현할 뿐이다. 문장의 유형은 문장 구성 성분의 자리 이동(주어-동사 도치)과 ‘est-ce que’라는 의문 첨사, 오름 억양을 이용한다.

이 가운데서 주어-동사를 도치하는 경우 가장 예의를 갖춘 의문문이 된다. 나머지 두 유형은 화·청자가 친숙한 관계일 때 사용되며 그 중에서도 성분의 자리 이동이 없이 문말에 오름 억양을 이용하는 세 번째 유형이 화·청자가 가장 격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문 유형이다.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진지 드셨습니까? ‘Avez-vous pris le repas?’(V1(Aux)-S-V2-O)

(33) 식사 하셨어요? ‘Est-ce que vous avez pris le repas?’

(est-ce que S-V)

(34) 밥 먹었어?(↗) ‘Tu a pris le repas?’(↗), ‘T’a pris le repas?’(↗)

(S-Aux-V)

예문 (32)의 경우 복합시제로 조동사와 주어 인칭대명사가 도치되어 가장 격식을 차린 의문문이 된다. 한국어의 경우 목적어의 어휘 자체가 존칭어로 선택되고 담화 동사에 생략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시-’와 청자를 존대하며 물음의 언어행위를 하는 표지 ‘-습니까’가 교착되어 있다. 예문 (33)의 경우 약간의 존칭적 의미가 들어 있는 목적어 명사가 사용되었고 담화 동사에는 ‘-시-’와 ‘-어’에 존칭 보조사 ‘-요’가 교착되어 있어서 청자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문 (34)의 경우 목적어 명사는 ‘밥’이라는 높임이 없는 명사와 의문 종결부는 소위 범용 종결소 ‘-어’가 교착되어 있다. 구어의 경우 의문이라는 행위(speech act)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문말에 오름 억양은 필수이다.

위의 세 가지 의문 유형의 구조를 통해서 한국어와 불어의 문장 유형 표현 전략은 각각 형태적, 통사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문법 범주의 표현은 주로 형태소를 교착하는 문법 형태소 뿐만 아니라 어휘 단어 자체가 높임형이 존재한다. 문장 유형의 결정은 종결소이며, 범용 종결소의 경우는 구어체의 경우 운율적 요소인 오름 억양이 필수이다. 이에 비해서 불어는 문장 유형의 표지로 문장의 성분 배열을 달리하는 통사적 방법을 이용하며 주어-동사의 도치를 통해서 ‘예의’ 표현의 전략을 사용하는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2. 의문형 복합 종결부에 나타난 불어와 한국어의 양태 실현의 대응 구조

불어에서 동사 형태는 인칭(person), 수(number), 서법(mood), 시제(tense), 상(aspect), 태(voice) 등의 범주에 따라 동사의 굴절(flexion)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범주들은 단지 동사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 범주는 명사와 형용사에도 관계되며, 인칭은 특히 인칭 대

명사, 태(voix)의 경우는 문장 전체가 관계된다. 또한 시제와 상 역시 문장 전체와 관련된 어휘적, 문법적 요소에 의해 표현된다. 게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범주들은 언어와 세계, 그리고 발화 행위 상황과 관련을 맺고 있다(M. Riegel et als, 2001:287). 전통 문법에서 불어 서법은 모두 다섯 가지이다. 접속법(subjonctif), 직설법(indicatif), 명령법(impératif), 부정법(infinitif), 그리고 분사법(현재 분사, 제룬디프<sup>26</sup>)을 말한다. 서법(mode)은 전통적으로 양태(modalité) 개념에 기대고 있다. 그런데 양태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 제시된 다섯 가지 유형의 서법은 화자가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양한 유형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직설법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 내용을 실재적(reality, il est venu ‘그가 왔다.’)으로 제시하는 서법이다. 이에 비해서 접속법은 발화 내용을 가정적(hypothesis, qu’il vienne<sup>27</sup>)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부정법과 분사법은 인칭의 분화 표시를 하지 않지만, 직설법과 접속법<sup>28</sup>은 인칭의 분화를 동사의 형태로 모두 표현하게 된다. 즉 1인칭 단수, 복수에서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까지 각 서법마다 인칭에 따라 6개의 동사 변화를 활용표를 통하여 제시한다. 불·한 사전의 경우 직설법과 접속법은 인칭과 그리고 시제(복합시제[조동사+과거분사] 제외)에 따라, 직설법

26) 동사의 현재 분사형(-ant)에 전치사 en을 붙여 주로 [동시성]을 표현한다. ‘En attendant Michel, je regarde la télé.’(미셸을 기다리면서 나는 tv를 본다.) 이 예문은 동시성을 표현하지만 맥락에 따라 이유, 방법, 조건 그리고 대립의 관계를 나타낸다(Y. Delatour et als, 1991:80)

27) 접속법은 주절의 동사가 주로 두려움, 기원, 바람 등의 의미를 지니는 종속절에서 실현된다. 접속사 ‘qui’(주격), ‘que’(목적격)로 연결된 종속절에서 동사의 형태가 [직설법 3인칭 복수 현재형+직설법 현재형 어미] ‘vienn-e’로 구조화 되어 있다.

28) 이 두 가지 서법은 인칭으로 분화되어 동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칭 서법(mode personnel)이라고 하며 여기에 명령법은 2인칭 단수, 복수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칭의 제한적 표시로 인칭 서법에 포함시키지 않기도 한다.

은 현재, 반과거, 단순과거, 미래의 네 가지 형태와 접속법 현재와 반과거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복합시제를 더하면 하나의 동사는 단순 시제의 경우 서법과 인칭 그리고 시제에 따라 24가지 형태로 표현되며, 복합시제까지 더한다면 과거, 복합형 다섯 가지<sup>29)</sup>(24가지)와 미래, 복합형 한 가지(6가지)<sup>30)</sup>를 더하여 하나의 동사는 인칭, 서법과 시제에 따라서 54가지로 표현된다.

불어의 동사어미가 인칭, 서법, 시제를 표현한다면 한국어 의문 종결부의 단순형과 복합형의 형태소 배열에서 한국어 종결부가 담당하는 문법 영역은 청자고려(높임과 양태), 문장 유형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형과 복합형이 존재한다. 단순형이 위의 세 가지 문법 영역을 하나의 형태로 감당한다면, 복합형은 어느 정도 각 문법 영역이 형태적으로 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국어 예문의 번역을 통하여 ‘-(으)ㄴ-’계 의문 종결부와 ‘-(으)르-’계 의문 종결부의 경우 ‘-(으)ㄴ-’계 의문 종결부는 불어의 직설법에 그리고 ‘-(으)르-’계 의문 종결부는 불어의 조건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었다.

‘-(으)ㄴ-’이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이라는 시제적 가치와 더불어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청자에게 전달할 때 명제를 사실(박동열, 2003:206-207)<sup>31)</sup>로써 인지한다는 서법적 가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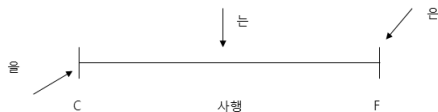
29) 과거를 나타내는 복합시제는 [조동사 avoir(=have)나 être(=be)+과거 분사]의 형태로 표현되는 복합과거, 전과거, 대과거, 중복합과거가 있다.

30) 미래를 나타내는 복합시제([조동사 avoir(=have)나 être(=be)+과거 분사])에는 전미래가 있다.

31) 전통문법에서 ‘-은, -는, -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박동열(2003)에서는 이들의 대립을 상(aspect)적인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을}은 사행(procès)의 앞쪽 초월 위치에서 전망적(prospectif)인상 이미지를 제공하고, {은}은 사행의 뒤쪽 초월의 위치에서 완료상 이미지를 주며, {는}은 진행의 의미인 {느}와 탈의미화 된 {은}의 결합을 통해 진행상 또는 사실성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박동열, 2003:207)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형 의문 종결부에 ‘-을-’이 포함될 경우 그 시제적 의미가 사행(procès, 事行)<sup>32)</sup>의 앞부분에서 포착되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시작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그 서법적 가치는 ‘미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전망상(prospectif)적 속성에서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실현의 ‘가능성’으로 나타낸다. 의문문의 기본적 속성은 화자가 청자에게 물음을 통하여 반응을 얻어내는 것인데, 한국어는 종결부에서 ‘-는-’과 ‘-을-’은 사실적, 그리고 추측적 양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불어권 화자에게 ‘-는-’이나 ‘-을-’이 포함되어 있는 종결부의 형태를 제시할 때 그 의미와 역할을 불어의 직설법과 그리고 조건법과 대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을-’이 불어의 조건법과 대조될 수 있는 영역은 미정에서 비롯되는 가정적 혹은 추측적 영역이다. 조건법은 사실이 아닌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내포한다. 불어의 조건법 동사 변화에서도 드러나듯이 어간은 미래형에 어미는 반과거어미이다. 즉 사태를 시간적으로 미래에 놓고 반과거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시간의 미래라는 시제적 가치를 표현하게 된다. 예를 들어 3인칭 단수의 조건법 형태는 [il chante-r-ait] 인데, -r-은 미래형 표지이고 -ait가 바로 반과거 표지이다. 즉 조건법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미래를 표현하고 직설법의 단순 미래는 현재와 비교해서 미래를 표현하게 된다. *Virginie pense que Paul viendra.* (비르지니는 뿔이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 *Virginie pensait que Paul viendrait.* (비르지니는 뿔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각각의 종속절에서 첫 번째는 직설법 단순 미래, 두 번째는 조건법으로 실현되었다. 조



c : commencement (사건의 시작)

F : fin (사건의 끝)

32)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상태·상태의 변화를 총괄하는 개념.

건법의 경우 과거 시점이라는 점에서 미래와 대립하지만, 과거의 미래 표현이라는 점 때문에 화자의 자신의 명제에 대한 태도는 더욱 ‘불확실(incertain)’하게 된다. 그래서 G. Guillaume(1929)은 조건법을 가정적 미래(futur hypothétique)로 파악한다.

한국어의 담화 동사의 종결부는 동사의 끝이면서 동시에 문장의 끝이다. 그리고 이 종결부의 내부구조는 위의 논의로 미루어 [청자높임+서법+문장 유형 결정]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서 종결부의 제시는 통합형으로만 제시하여 포괄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복합종결부의 경우 다양한 형태가 융합되어 형성되는 과정에서 ‘-는-’과 ‘-을-’의 포함 여부에 따라 화자가 자신의 명제를 사실적으로 인지하느냐 혹은 가정적으로 인지하느냐를 표시한다. 이에 비해서 불어의 서법은 인칭범주, 그리고 시제와 함께 실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의문 종결부에 ‘-는-과 -을-’이 포함된 경우만 살펴보았다. 앞으로 종결부의 형태 배열상 서법소 자리에 올 수 있는 회상법 ‘-더-’가 포함된 의문형 복합 종결부 ‘-던가-’의 형태 구조도 분석하여 불어의 대응 범주를 기술해 볼 필요가 있다. ‘-더-’가 나타내는 회상법이라는 한국어의 문법 범주가 불어의 어떤 범주와 대응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한국어 의문형 종결부에서 ‘-더-’가 포함된 복합 종결부의 의미를 구조 분석과 함께 불어의 대응구조와 비교·설명한다면 불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는-, -을-, -더-’를 포함하는 한국어 복합 종결부의 체계적 설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 5. 맺음말

한국어 문장 종결부 교육에서 복합형일 경우 대부분 굳어진 형태를 중심으로 교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담화 동사는 [용언 어간+선어말어미+종결부] 순서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형태소가 결합되어 표현된다

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종결부는 한국어의 교착어적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고 많은 양태적 의미가 문장생성 차원에서 용언의 선택 이후 선어말 어미나 종결부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종결부는 덩어리로 제시되어 산출된 종합적 의미만을 전달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형태소 위주의 종결부 이해의 분석적 접근은 국어를 전공하고 불어권 화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거나 불어권 화자로서 불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교육할 때 필요한 양언어의 구조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일종의 한국어와 불어의 비교, 대조 문법으로 불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인에게 불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한국어와 불어의 문형 구조의 차이와 한국어 종결부에서 표현될 수 있는 불어 문법 범주를 대응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해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으)ㄴ/는-’을 포함하는 어미는 모두 133가지로 나타난다(이희자·이종희, 1999). 그러므로 한국어 어미를 높임법 차원에서, 서법 차원에서, 나아가 문장의 유형별로 다시 범주화 하고 학습자의 언어 체계를 고려하여 대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미 사전의 개발이 유용할 것 같다. 덩어리로 제시된 종결어미는 서법적 의미와 문장 유형이라는 두 가지 문법 범주를 내포하기 때문에 두 범주 별로 나누어 보고 다시 용언의 의미 자질,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불어권 한국어 학습자에게 종결부 교육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형 종결어미를 형태·통사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에 따라 단일형과 복합형 그리고 단일형 아래 융합형으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방법론(허경행, 2010:240)은 차후에 종결 어미의 형태 구조의 유형별로 제시 설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태소의 융합으로 얻어진 종결어미는 결합된 형태소로 말미암

아 의미를 예측할 수 있고 문법화가 진행된 경우는 새로운 의미 획득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준이 될 수 있는 공통된 형태소를 중심으로 서법과 문장 유형의 쓰임을 제시한다면 종결부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고영근(1974), 현대 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18쪽~157쪽.
- 고은숙(2010), 국어 문장 종류에 관한 역사적 고찰 -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46, 1쪽~45쪽.
- 김태엽(1997), 국어 종결어미의 형태론적 유형, <어문학> 60, 한국어문학회
- 김태엽(2001),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 국학자료원.
- 김하수(1979), “-크까’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말> 4, 연세대 한국어학당, 55쪽~77쪽.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권재일(2002), 한국어 의문문의 실현 방법과 그 언어 유형론적 특성-구어자료를 대상으로, <한글> 257, 한글학회, 167쪽~200쪽.
- 류현미(1999), 국어 의문문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목정수(2004), 언어유형론의 비판적 고찰: 한국어는 교착어, 불어는 굴절어라는 것의 의미를 묻다, 인문언어 6, 185쪽~211쪽.
- 박나리(2004),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의 종결어미 기술에 대한 한 제안, ‘-어, -네, -지, -다, -구나, -단다’의 담화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91쪽~116쪽.
- 박동열(2003), 한국어 시제와 법체계에 관한 연구, <프랑스 어문교육> 16, 프랑스어문교육학회, 197쪽~222쪽.
- 박동호(2007), 한국어 문법의 체계와 교육내용 구축방안,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159~184쪽.
- 박영옥·한영목(2013), 한국어 문장종결부의 구조에 대한 불어권 화자의 이해 모색, <담화와 인지>, 20-2, 담화와 인지 언어학회, 73쪽~98쪽.
- 박종갑(1986a), 국어 의문문의 특성(2) 유형과 의미 ‘-을까’ 유형의 의문문을 중심으로, 어문학 47 : 45쪽~64쪽.
- 박종갑(1986b), 의문법 어미의 종류에 따른 의문문 유형의 의미 기능, <영남어문



학> 13, 397쪽-419쪽.

-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199쪽~225쪽.
- 서태룡(1985), 정동사 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진단학회, 159쪽~192쪽.
- 손현선(1998), 이른바 반말 종결 형태의 양태적 의미 연구: ‘-어, -지, -군, -네, -는가, -나’를 중심으로, 남기심 편(1998), 국어 문법의 연구 IV: 되짚어본 국어 문법의 문제들, 태학사, 251쪽~301쪽.
- 이문규(2012), 국어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승욱(1997), 『종결형어미의 통합적 관계 - {-다} · {-라}의 素性記述을 위하여-』, 국어형태사연구, 태학사, 231쪽~249쪽.
- 이유기(2001), 국어 의문 종결형식의 구조, <동악어문논집> 37, 22쪽~67쪽.
- 이정(1978), 서법의 정의와 분류, <말> 3,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81쪽~96쪽.
- 이정란(2011),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생산 능력과 이해 능력 비교 - 추측, 회합 표현의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297쪽~319쪽.
- 이희자 · 이종희(1999),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 문화사.
- 임동훈(2011), 한국어의 문장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323쪽~359쪽.
- 장경희(1985), 현대 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한영목(2008), 충남 방언 문법, 집문당.
- 허경행(2010), 한국어 복합 종결어미, 박문사.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황경자(1981), 현대 불어의 부정 의문문 연구:정신역학이론에서 의문문 해석, <어학연구> 17:1, 23쪽~39쪽.
- Bolinger, D.(1977), *Meaning and Form*, Longman Group Ltd.
- Bybee, J, L.(1985), *Morpholog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uillaume, Gustave. (1929).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Paris: H. Champion.
- Joly, André, Dairine O’Kelly.(1990).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nglais*, Paris: Nathan.
- Riegel Martin, Jean-Christophe Pellat, René Rioul. (2001).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Paris: PUF.
- Y. Delatour et als(1991), *Grammaire du français*, Paris: Hachette.

박영옥(Park Youngok)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9

전화번호: 042-821-5321

전자우편: azurpark11@gmail.com

한영목(Han Youngmok)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9

전화번호: 042-821-6504

전자우편: ymhan@cnu.ac.kr

접수일자: 2013년 8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3년 10월 11일

게재확정: 2013년 10월 16일